

해외현장연구 개인 에세이
- 일본 기관 컨택 및 인터뷰 방법에 관하여 -

디지털미디어학과 20221045 김재현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며	
2. 본론	
2-1. 기관 탐색	
2-1-1. 대학 교수의 경우	
2-1-2.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2-1-3. 학부생의 경우	
2-2. 기관 컨택 메일 작성법	
2-3. 인터뷰 시 유의점	
3. 결론	
3-1. 마치며	

1. 서론

1-1. 들어가며

2023 학년도 1 학기에 2 학년의 입장에서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강 면접 당시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 배움이 많이 부족한 나에게는 쉽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리하여 내가 팀에 확실히 이바지할 수 방법은 일본과 관련한 경험과 일본어 실력을 활용해 기관 컨택과 인터뷰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산하기관 두 곳과 대학 교수님 두 분 인터뷰 일정을 잡는 데 성공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23 학년도 해외현장연구 수업으로 인해 별다른 공문 없이, 아주대학교 학부생 연구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에세이에서는 이번 한 학기동안 필자가 해외현장연구 수업을 수강하며 기관 컨택 및 인터뷰를 진행하며 겪고 느낀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추후에도 해외현장연구 수업이 이루어지며 일본을 무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될 때, 본 에세이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본론

2-1. 기관 탐색

일본의 교수,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기관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단순히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여러 기관에 연락을 보내기 직전의 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2-1-1. 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를 진행하며 일본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해도, 과연 어떤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애초부터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일본의 교수님을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만약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이다. 먼저 필자가 인터뷰 하기에 적합한 교수님을 찾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범위를 설정한 뒤, 해당 대학의 교원소개(教員紹介)란을 이용해 교수의 연구 분야를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연락처까지 얻는 것이다. 이번 학기 해외현장연구 일본팀은 도쿄로 현장연구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도쿄대에서 이른바 GMARCH까지의 대학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탐색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릿쿄대학의 시마무라 교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구글 검색결과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과 함께 교원소개 작성해 검색하면, 대체로는 위와 같이 맨 처음으로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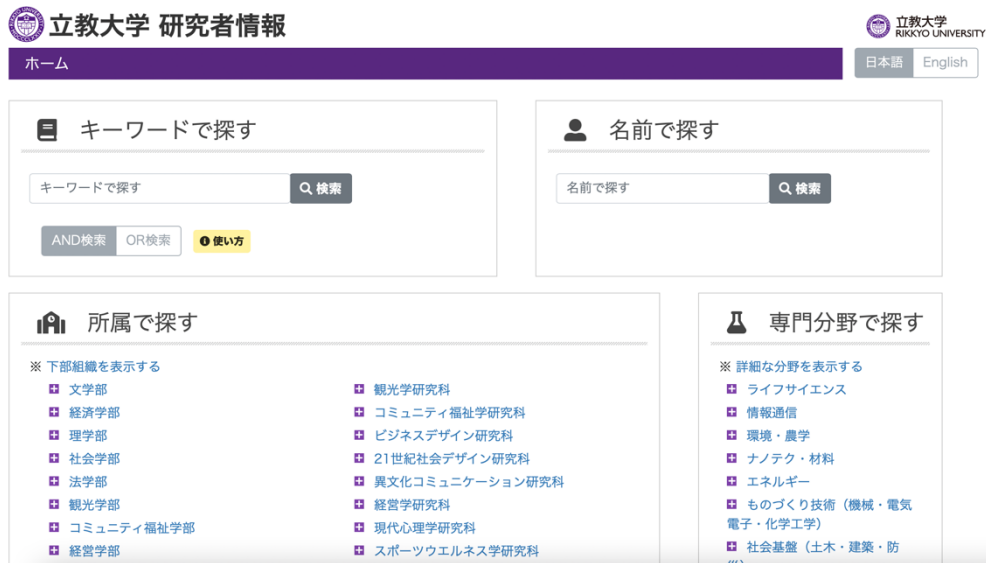


그림 2 릿쿄대학 연구자정보 포털

릿쿄대학의 경우 교원소개 페이지에서 곧바로 연구자정보 포털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릿쿄대학은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 되어있는 편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키워드 검색 기능 등은 없고 학부 수준으로만 교원들을 분류해 놓아 탐색하고자 하는 학부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들어가며 인터뷰하기 적합한 교수님을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그림 3 법학부 선택시의 화면

필자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한 교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부를 선택하였다. 총 48건의 교원이 검색되었는데,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대학이더라도 위 사진에서 보이듯 민사법학/국제법학/공법학 등등 간단한 연구 키워드는 보이도록 홈페이지를 꾸며 놓는 경우

立教大学
RIKKYO UNIVERSITY[検索結果一覧に戻る](#) [ホーム](#)

English

- ◆ 氏名
- ◆ 所属
- ◆ 職名
- ◆ 連絡先
- ◆ 研究テーマ
- ◆ 研究キーワード
- ◆ 担当科目
- ◆ 学内職務経歴
- ◆ 外部リンク

2023/06/07 更新

島村 暁代

SHIMAMURA Akio

*大学が定期的に情報更新している項目（その他は、researchmapの登録情報を転載）

所属*	法学部 国際ビジネス法学科 法学研究科 法学政治学専攻 博士課程後期課程 法学研究科 法学政治学専攻 博士課程前期課程	
職名*	教授	
連絡先	5064928@rikkyo.ac.jp	
研究テーマ*	高齢期の所得保障に関する公的年金制度や私的年金制度、高齢期の就労について横断的に研究している。特にブラジル法やチリ法を素材としながらわが国の制度を俯瞰して捉えることに努めてきた。今後は医療保険制度等をも研究の対象に広げ、より広い観点から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	
研究キーワード	労働法 社会保障法	
担当科目*	2022年度 演習 労働法 社会保障法 労働法研究 法学基礎演習	
学内職務経歴*	2022年4月 - 現在 法学部 国際ビジネス法学科 教授	

2-1-2.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다음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이다. 컨택할 정부 기관을 찾는 데에 있어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국내의 학술자료 중 일본과 관련 되어있는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인용 및 참고자료로서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더러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을 통해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연구

자와 인터뷰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거나, 총무성이나 후생노동성같은 정부부처의 경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림 5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위 그림은 실제로 2023 해외현장연구 방일 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우측 상단을 잘 살펴보면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お問い合わせ”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는 의견 수렴 창구로써, 많은 연구기관이나 정부 부처, 기업 등에서 일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다.

그림 6 お問い合わせ 상세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질문을 보낼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약간씩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연락처와 간단한 신원, 그리고 본론으로 구성된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연구 기관의 경우 연구자 소개 페이지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적절한 연구자분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는 편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연락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필자의 경우에도 위의 방식으로 연락을 보내 연구소 측에서 인터뷰가 가능한 분을 안내해 주셨다.

2-1-3. 학부생의 경우

마지막으로는 학부생 컨택의 경우이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 내에 지인이 있어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방법을 통한 컨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가 시도한 방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동아리 소개 페이지를 통해 동아리의 공식 SNS 계정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동아리 소개 페이지의 경우 탐색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름에 “クラブ” 혹은 “サークル” 라고 작성한 뒤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동아리 소개 페이지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이 교원소개 페이지보다 더 열악한 면이 있었다. SNS 계정의 경우 일본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아리 소개 페이지를 통해 동아리 이름을 알아낸다면 구글 검색을 통해 해당 동아리의 SNS 계정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메이지 대학과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동아리 SNS계정을 통해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특별한 답장을 받을 수 없었다. 만약 답장을 얻고 싶다면 현재도 활동성을 많이 보이는 SNS 계정을 지닌 동아리에 연락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2-1. 기관 컨택 메일 작성법

일본 기관에 컨택 메일을 보낼 시에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의 경우엔 영어에도 능통하시겠지만, 필자가 느끼기에 일본인은 한국인 이상으로 자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어로 컨택 메일을 작성하는 것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정갈한 일본어로 작성한다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도 아직 일본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일본 비즈니스 메일 작성시의 매너를 공부하고

현재 도쿄 4 대학에 재학중인 일본인 연인의 검수를 받아 작성한 만큼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 정도만 지켜 메일을 작성한다면 무리 없이 기관 연락처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재현 <tessera2520@ajou.ac.kr>
5064928에게 ▾

5월 3일 (수) 오전 12:02 ☆ ↶ ⋮

島村 暁代 様

初めまして。
韓国の亞洲大学の学部生キムと申します。
インタビューを頂くことが可能か伺いたく、ご連絡いたしました。

私と3人の亞洲大学の学部生に成り立つ研究チームは、韓国の中高年層の雇用不安定性と再就職問題および福祉死角地帯の社会的問題に対する深刻性を認知し、これを研究テーマに選定しました。そして今、日本の就職氷河期世代や中高年層の雇用支援政策と現状を調査しています。高齢期の就労や福祉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と聞いています。そのため、当該分野の専門家である 島村先生 の諮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

お手数おかけいたしますが、6月22日から27日まで日本に現場調査に行く予定ですので、もしこの時お時間ございましたら30分から1時間ほどインタビューをお願いしたいです。

ご回答お待ちし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金栽賢 [tessera2520@ajou.ac.kr]

그림 7 처음 메일을 보내는 경우

위 그림은 시마무라 교수님께 보낸 첫 메일이다. 일본 메일 양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가진다.

받는 분 이름

첫인사

본문

끝인사

보내는 이 이름 및 연락처

한국에서 작성하는 메일과 별 다를 것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약간의 특징들이 존재한다.

제목의 경우 제목만 읽어도 어떤 용무인지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는다. 필자의 경우엔 “学生研究の為なインタビューの要請の件”(학생연구를 위한 인터뷰 요청의 건)이라고 작성했다.

다음으로 받는 분 이름을 작성할 때는, 이름의 뒤에 様를 붙인다. 만약 받는 분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お問い合わせ 등의 창구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님께’ 라는 의미로 ご担当者様라고 작성한다.

첫인사의 경우 메일을 처음 보내는 경우 はじめまして。 , 그리고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메일을 보낸 이유(요청하고자 하는 내용)를 한 줄 이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본문의 경우 보다 자세히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한다.

끝인사의 경우 일본 메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작성한다. 필자의 경우 ご回答お待ちしております。(답신 기다리겠습니다。) お忙しいところ恐縮で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引き続き、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이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등을 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는 보내는 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한다. 하지만 보통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고, 전화를 하는 일은 적기때문에 연락처는 생략해도 괜찮다. 이름을 적는 이유는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 답장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위 사진처럼 한자로만 적게되면 한국식 발음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金栽賢(キム ジェヒョン)** 과 같이 가타카나로 발음을 같이 표기하거나, 한자 대신 가타카나 표기만 적는 것이 좋다.



김재현 <tessera2520@ajou.ac.kr>

AKIYO에게 ▾

島村 暁代 様

お疲れ様です。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ご返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亜州大学のキムです。

もしかして下記の時間にインタビューの要請に応じていただけますかお伺いしたく、ご連絡いたしました。
私たちは6月22日(木)の16時以後、6月25日(日)、6月26日(月)の13時以後に予定が空いています。
ご確認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ご回答お待ちしております。
お忙しいところ恐縮で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亜州大学 キム

그림 8 답신 메일 및 메일 에티켓

답신 메일의 경우 첫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お疲れ様です。(수고하십니다.)

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언제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ご返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답신 감사드립니다.)

亜州大学の誰です。(아주대학교의 홍길동입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 메일을 보낼 때의 것과 별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메일에 답신이 온 경우 1영업일 이내로 답장하는 것이 예절이며,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시간이 애매하다면 예약 메일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또한 메일 작성 시 적절한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어보다 라는 뜻의 ‘聞く’ 대신 보다 존경의 의미를 담은 ‘伺う’ 등을 사용하는 등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連絡しました.’ 대신 ‘ご連絡いたしました.’ 와 같이 존대어의 사용의 유의하도

록 한다. 。 등의 문장부호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고, 이모티콘 등의 사용은 기피해야 한다.

하지만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 한국인 학부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고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매너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만 보인다면 충분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3. 인터뷰 시 유의점

인터뷰 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먼저 메일 등을 통해 보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인터뷰 언어 역시 일본어로 진행하는지 영어로 진행하는지 등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알려드려야 한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다.

만약 인터뷰 도중 촬영이나 녹음을 진행할 경우, 인터뷰 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필자의 경우 “私たちがまだ日本語を聞き取れるのが苦手なので、もしかしてよかったら録音をしてもいいですか?” 등으로 여쭙보았다. 녹음을 거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지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적은 있다. 연구가 끝나면 곧바로 삭제하겠다거나, 녹음의 목적과 사용 계획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해 있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차가 지연되는 경우나 출퇴근시간의 경우 자리가 없어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30 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면 인터뷰 장소에 직행하는 것보다는 근처의 카페 등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적절한 시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선물의 경우 필자는 김 선물세트와 브라우니 제품을 드리는 식으로 하였다. 일본은 선물의 내용보다도 포장에 더 의미를 두는 문화가 있기때문에, 최대한 곱으로 보았을 때 단정하고 정성이 담겨 보이는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3. 결론

3-1. 마치며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은 나에게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존대어나 비즈니스 메일 작성 요령, 그리고 직접 전문성을 지닌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본어 실력이 정말 네 달 전쯤과 비교해 크게 성장한 것 같다고 스스로 느낀다. 일본인 연인과

교제하며 일상적인 대화는 많이 나누어 보았지만, 대체로 예사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렇게 경어를 많이 사용해가며 회화를 해 본 경험은 참 새로웠다. 또한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회화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레 발음이 어려운 한자어들을 많이 사용했던 부분도 값진 경험이 된 것 같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원들이 새롭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즉석에서 일본어로 대신 질문해주거나,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일본어 답변을 일본어를 할 수 없는 팀원에게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과정을 겪으며 통역 일이 이런 것이겠구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일본은 한국에서 조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일본의 전문가 분들과 눈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역시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